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확장

고향사랑기금 1억5000만원 지원받아 자립거점 운영 체제 전환... 규모·프로그램 확대

무주청소년수련관(관장 김주형)이 2026년 자립거점기관으로 전환되며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자립거점기관은 사회적 배려 대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비 거점기관 단계를 거쳐 경제적·운영적 자립을 달성한 기관을 의미한다.

24일 무주군에 따르면,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는 2020년부터 6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통해 기반을 다져왔다.

올해부터는 무주군 고향사랑기금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자립거점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역 학생들의 참여 기회와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기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였던 단원 자격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넓어졌다.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타악기 분야의 신규 단원을 추가로 영입해 총 60명이 함께 무대를 꾸밀 수 있게 됐다.



무주청소년수련관이 2026년 자립거점기관으로 전환되며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이종현 무주군청 행정복지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재원이 지역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구성도 한층 강화됐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밤과 후 3시간씩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호른, 트롬본, 타악기 등 분야별 정기교육이 진행된다.

향상 음악회와 정기연주회도 개최된다.

올해부터는 타 지역 단원들과 교류를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 캠프'도 운영한다.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희망 콘서트'와 공연장을 직접 찾는 문화예술 현장 캠프도 추진한다.

농촌지역 자립형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도비 1,500만원이 투입되는 현장 캠프를 통해 아이들의 예술적 경험을 확장할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행안부 주관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

무주군, 전국 군 단위 2위

무주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가운데 2위에 오르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7위에서 올해 2위로 35계단 상승한 성과로, 무주군의 행정 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주군은 혁신 활동 참여 및 성과 확산 노력과 주민 소통·참여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주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시각대해소,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 내부 효율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국민 체감도 등 대부분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군은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군청 누리집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게시판'과 '청년 자유게시판'을 신설했다.

주민아이디어 공모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운영,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정책 개선 효과를 이끌어냈다.

의료·복지·교통·교육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

전북 동부권에서 유일하게 인공신장실을 갖춘 '무주군립요양병원'을 개원해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통합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 조직 내 '기본사회팀'을 신설해 기본소득 지급 등 시범사업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84㎡ 규모의 신혼부부 신축 아파트 특별 공급 사업을 추진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 사례로 주목받았다.

전북 무주·충북 영동·충남 금산 등 3도 3군 공유차 협약을 기반으로 한 지역 연계 관광상품 운영도 눈길을 끌었다.

무주반딧불축제에 3부 정책과 ESG 경영을 도입해 지속 가능성을 강화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 여행 마을'을 콘셉트로 유엔 세계관광기구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된 점도 혁신 성과로 평가됐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3년 연속 혁신 역량 인정

장수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3년 연속 혁신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광역 17개·기초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혁신 리더십 △조직문화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등 10개 분야를 평가해 61개 우수기관을 발표했다.

장수군은 이번 평가에서 혁신활동 참여 및 성과 확산, 민·관 협력 활성화, 대표 혁신과제 추진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모든 평가지표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방정부 혁신을 위해 군의 전제하고 업력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063-430-8403~5)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인대형 수직농장'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농업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수군은 최근 3년 연속 우수등급을 유지하며 조직 내 자율적 혁신 분위기 조성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지속해오며 장수군의 혁신 가속도가 정점에 달했음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포상금 등을 받게 되며 우수 혁신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예정이다.

최후식 군수는 "이번 성과는 장수군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은 민생을 위해 앞장서는 정책 개발에 총력을 다해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장 중심 혁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소상공인 힘내세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진안군은 경기 체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지난 23일부터 본격 추진했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안군과 NH농협은행, 전북은행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해 관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 제도이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함께 총 4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총 5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대출 기간 5년 동안 연 3%(도

1%, 군 2%)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2025년에는 155개 업체에 72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전북자치도 내 군 단위 최초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며 도내 타 시군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진안군에 소재하고 업력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063-430-8403~5)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모두가 공존하는 진안' 이우규의 3대 비전

진안군수 출마예정자, 건강복지·다문화 공존정책 등 발표

이우규 진안군수 출마예정자(사진)는 24일 진안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3대 비전을 발표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정이 끝까지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모두가 공존하는 진안'을 만들고자 하는 특심 일꾼 이우규의 3대 비전"이라고 밝혔다.

이 출마예정자는 고령화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건강과 복지가 잘 구축돼 살기 좋고 편안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안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방 중심 건강복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MRA를 포함한 생애주기



별 무료 건강검진을 주장했다. 이우규 진안군수 출마예정자는 어르신이 안심하는 돌봄 진안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스마트시계를 지원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보호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회기적으로 개선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 노동이 존중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형 행복버스 확대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와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이동 지원으로 이동복지를 실현하고, 군민 모두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 장애가 없는 건강한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우규 진안군수 출마예정자는 진안 실정에 맞는 농촌 맞춤형 다문화 공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다문화

의 날 지정과 고향 방문 확대 지원으로 가족 안정과 정착을 돕고, 농촌 현장과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 다문화 자녀 교육·돌봄 및 진로 지원을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과 갈등 없는 진안 농촌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진안은 장애가 제약이 되지 않는 권리 중심 복지도 배리어 프리를 꼭 실행하겠다"고 강조하며, "진짜 일꾼 이우규가 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2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연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 과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의 기회가 되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한 것"이라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장수군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앳서포터즈 운영 지역 홍보 강화

진안군이 전북권 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홍보 활성화에 나선다.

진안군은 24일 군청 부근수실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북지회(대표 손경호)와 간담회를 갖고, 고향사랑기부제와 관광·축제 홍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경영 진안부군수와 손경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전북권 학원 및 교육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홍보 콘텐츠를 공유하고,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안앳서포터즈'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안앳서포터즈'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 주요 축제 및 관광지 홍보, 지역 소식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과 외부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